

'25.10.17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 · 테

- 파키스탄, 국경 교전으로 인해 아프간 탈레반 200명 이상 사살
 - 10.13 언론은 파키스탄 軍이 지난 11일 국경 일대에서 탈레반 정권 인사와 무장세력 200명 이상을 사살했으며, 자국군의 피해 규모는 2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
 - ※ 파키스탄은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국경 인근에서 무장단체 등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음을 비판하였으며, 아프간은 이를 부인하며 갈등이 증폭
- 韓, 인천 · 충남 · 광주 학교 대상 폭발물 설치 신고 접수
 - 10.13 언론은 충남 아산, 인천, 광주의 학교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과 소방당국이 전교생을 대피시키고 교내를 수색하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도
 - ※ 경찰은 전화를 건 신고자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지만 신고자는 전화한 사실이 없으며 해킹당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언
- 韓, APEC 행사 경호·안전분야 총괄 경호안전종합상황실 개소
 - 10.14 언론은 13일 대통령 경호처를 중심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이 APEC 경호안전종합상황실을 개소하였으며, 관계기관 상황실 및 대테러·안전활동 전반에 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보도
 - ※ 상황실은 경호안전통제단 소속의 여러 국가기관 관계자들이 통합근무하며, 정상회의 기간 동안 모든 경호·안전활동에 대해 지휘와 작전통제를 총괄

중 동

- 이스라엘, 하마스 생존 인질 20명 최종 석방
 - 10.13 언론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이 2년 만에 모두 풀려났으며, 향후 이스라엘도 2,0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하며 휴전 합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

미 주

- 美, 미시시피州 전역 거리 행사간 동시다발 총격 사건 발생
 - 10.12 언론은 미시시피州에서 시행되는 '고교 홈커밍 풋볼 경기' 이후 열린 거리 행사 中 3개 소도시에 총격 사건이 발생하였으며, FBI와 현지 경찰은 연계된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음을 보도
 - ※ 美 중남부 지역에서 매년 가을 고교 졸업생과 지역주민을 초대해 경기를 진행하며 최근 청소년 총기 사건으로 행사 관련 치안이 불안하였다고 부언

유럽

- 벨기에, '드론 활용' 정치인 겨냥 테러 모의 적발
 - 10.11 언론은 벨기에에서 정치인을 겨냥한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10~20대 남성 용의자 3명이 체포되었으며, 용의자 자택에서 사제 폭탄과 탑재를 위한 드론 제작용 3D 프린터기가 발견되었다고 보도
 - ※ 연방 검찰은 "용의자가 지하디스트에서 영감을 받은 정치인 겨냥 테러 공격을 실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"고 부언
- 폴란드, 정보 빼돌린 러시아인 2명 간첩 혐의로 기소
 - 10.14 폴란드 검찰은 러시아 정보 활동에 참여하고 정보를 해당 정보기관에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을 기소했으며, 언론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다수의 사보타주를 벌여 비판받고 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- 니제르, 투항한 무장단체 조직원 300여 명 정부軍에 편입
 - 10.14 니제르 軍 당국은 전향한 원리주의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을 대상으로 수개월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, 총 369명 中 상당수가 軍에 편입되었고 나머지는 생계 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았다고 발표

최근 테러사건

벨기에, 브뤼셀 총격 테러 사건

- '23.10.17. 벨기에 브뤼셀 생크테레트 광장 인근에서 군용 총기로 무장한 범인이 스쿠터를 타고 달려와 행인들을 향해 최소 8차례 총격을 가해 인근을 지나던 스웨덴인 2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
 - 벨기에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를 18일 오전 발견하고 사살
- 벨기에 당국은 사건 직후 브뤼셀 지역의 테러 경보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다가 용의자 사살 후 공모자가 없는 '단독 범행'에 무게를 두고 기존 3단계로 다시 하향 조정
- ISIS는 사건 하루만인 18일 오후 자체 선전매체인 '아마크'를 통해 해당 총격이 지하디스트들과 싸우려는 글로벌 연합체에 합류한 스웨덴인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하며 同 테러 사건의 배후를 자처
- 이탈리아, 슬로베니아, 덴마크, 스웨덴 등 '셴겐 조약' 가입국인 유럽 국가들이 불안정한 중동정세와 브뤼셀 총격 테러 사건, 프랑스 고등학교 교사 테러 사건 등을 계기로 국경 검문검색 등 통제를 강화
 - ↳ '23.10.13. 프랑스 고등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 사망

테러 상식

< 셴겐 조약 >

- (개념) 유럽 지역의 29개국(이탈리아, 프랑스, 독일 등)이 참여 중인 협약으로 회원국 간 국경 통제 없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, 단일 국가처럼 여행·통행이 가능하며 비회원국 국민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중 최대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
- (테러 악용 위험)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용의자 「아바우드」가 “시리아에서 벨기에 자택까지 아무 검문을 받지 않았다.” 라고 말한 사례에서 보듯이 테러 조직이 국경 없는 이동의 틈새를 악용할 우려가 있음
- (보안 강화) △ 프랑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임시 국경 검문소를 재도입 △ 유로저스트(Eurojust), 셴겐 정보시스템(SIS) 등을 통해 테러·범죄 정보 실시간 공유 △ '25년 10월 12일부터 셴겐 조약에 가입한 29개국에 입출국할 때 생체정보(지문과 얼굴 사진)를 등록하는 자동화 시스템 시행